日, 골판지로 만드는 '불상 얼굴간판' 화제

학예원 출신 니시유키 작가
'입체 만다로' 접한 후 제작
1:1 제작…불보살 되는 경험
10년 작업…100개 제작목표
"불상 매력 새롭게 느끼길"

박영빈 객원기자


골판지로 만든 비로자불 얼굴간판을 시연하는 니시유키 작가.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한때 유명 관광지나 사찰에 종종 보였던 얼굴을 끼워 사진을 찍는 '얼굴간판'. 불상을 모티프로 이 얼굴 간판을 골판지를 이용해 10년째 만드는 작가가 일본에서 화제다. 지난 1월 25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는 얼굴간판 작가인 니시유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골판지 불상 얼굴간판으로 유명한 작가 니시유키는 본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전통문화를 모티프로 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 그는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재일에 맞춰 절에 갔었다. 덕분에 불상이나 사찰에는 익숙한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 후 20대 중반에 교토의 토지(東寺)에 봉안된 '입체만다라'를 보고서 얼굴간판 제작을 결심했다.

불상 얼굴간판은 2022년, 고향인 오카야마 시내에서 진행된 문화행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후 SNS와 현지 미디어 등을 통해 간판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나 타 지역의 문화행사 등에 초청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다. 니시유키 작가는 "종종 사찰의 의뢰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찰에 모셔진 본존불이나 문화재 불상을 모티프로 제작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총 50개의 간판을 만들었으며 최종적으로 100개의 간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니시유키 작가는 "그동안 불상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정적이고 고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입체만다라에서 느낀 역동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장 먼저 제작한 얼굴간판도 입체만다라 중에 있는 보생여래가 첫 작품"이라고 밝혔다.

니시유키 작가가 만든 얼굴간판은 골판지라고 하는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얼굴과 손을 넣어 체험자가 직접 불보살상이 되는 듯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보통 유물로 전하는 불상을 모티프로 가능한 1:1사이즈로 제작하고 있다. 작품에 따라서 아크릴 안료로 채색을 하곤 하지만, 골판지의 색이 가진 흙의 색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포인트로 작용한다.

또 간판이라는 점에서 입체가 아닌 평면이 중심적인 모습이지만 골판지를 덧붙이거나 약간의 음영을 넣는 등 실제 불상과 같은 입체감도 부가하고 있다. 그는 "제작시에는 상호를 모두 그린 후에 잘라낸다. 아무래도 상호를 그리지 않으면 불상으로서의 균형감이 사라진다"며 제작시의 여러 조건들을 설명했다.

다양한 장르 가운데 얼굴간판을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작가는 "이 작품의 테마는 '대화와 소통'이다. 불상이 되는 체험을 통해 다양한 만남이 생기고 그것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불화의 경우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는 것으로 불보살을 완성시킨다. 그러나 나의 작품들은 사람의 얼굴을 끼워 넣음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나에게 부처님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모두의 마음 속에도 반드시 소중한 것이 있을 것이다. 불상을 완성시키면서 각자의 마음에 소중한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만난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

상호대화 · 이해 위한 만남
개종 · 영적분리 · 생태 주제


교황과 대담한 캄보디아 종교대표단. 사진출처=파리 외방 전교회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이 교황과 만남을 가져 화제다. 지난 1월 26일 아시아권의 가톨릭 뉴스를 전하는 'UCA 뉴스'는 캄보디아의 불교, 기독교 대표들로 구성된 종교 대표단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대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산 소체아 스님, 자선사업가 멍글리 J 콱, 파리 외방선교회의 윌 컨커 신부 등 3명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은 지난 1월 22일까지 6일간 유럽순방을 가지고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83년 캄보디아 불교 대표였던 마하 고산다 대종사와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40년 만에 이뤄진 캄보디아 스님과 교황의 만남이기에 캄보디아 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개종, 영적분리, 생태를 순방 주제로 삼은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은 유럽 순방 일정 후 간담회를 열고 "교황청 종교 간 대화부에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교황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에서 주최한 심포지엄도 참석했다"면서 "유럽순방 일정 간 종교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캄보디아의 정신적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서 대표단은 카리타스 모나코와 공동으로 실시한 자선 프로그램에 5000유로(한화 약 6600만원)도 전달했다.

윌 신부는 "다른 전통과 다른 길을 가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수도원 생활로 대표되는 삶의 모델로 유라시아 대륙에 영감을 주었다. 이 수도원 생활은 단순하고, 냉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생태적 전환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수도승들과 성직자들은 이러한 분리적인 삶의 모델에서 세계를 위한 생태적 전환을 계속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러시아 스님, 부다가야서 주류 소지 체포

음주용 아닌 공양용 주장, 판결 귀추 주목

주정부 법으로 주류가 금지된 비하르주에서, 술을 소지한 죄로 러시아 출신의 스님이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21일 인도의 '타임즈 오브 인디아'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스님의 체포 사실과 경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부다가야 경찰국 부국장인 아제이 프라사드는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입구 검색대에서 술을 소지한 러시아 출신 승려를 현장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마하보디 사원은 지난 2013년 폭탄테러 이후, 모든 방문자들은 입구에서 2회 이상의 소지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체포당시 스님은 소지품 스캔 중에 가방 속에 100ml들이 병에 10ml의 위스키를 가지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스님은 "이것은 음주용이 아닌 기도의식에 사용되는 공양물의 일부"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포된 스님은 가야 중앙 유치장에서 법정구속 중이며, 곧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다가야 경찰국은 "이미 7년도 넘게 엄격한 금주령이 시행되고 있고, 이 사실은 해외에도 널리 소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주류를 소지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인 일이며, 인도의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엄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보성지인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사진출처=인터넷 무료이미지

한편 스님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한 현지 누리꾼은 "힌두교 사두들도 공양의식에 술을 사용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었으며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금주령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의례마저 단속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교는 교리적으로 술이 금지돼 있지만, 산신이나 용왕 같은 세속적인 신에게 술을 공양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보이는 일이다. 종교의 보편성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새로운 불교 유적군 발견

50년 간 단독 유적으로 추정
발굴 통해 대규모 승원 드러나


바랏푸릇 승원 유적군 발굴 현장 전경. 사진출처 = 더 힌두

인도 벵골 서부의 바랏푸르에서 50년 전 발굴된 불교 사원이 승원 유적군으로 밝혀져 화제다.

지난 1월 21일 인도 언론 '더 힌두'는 벵골 서부의 바랏푸르에서 50년 전 발굴된 불교 사원이 승원 유적군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바랏푸르 유적지는 1972년에서 1975년 사이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과 버드완 대학 고고학자들이 불탑과 불교사원 유적을 발견하면서 불교 유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ASI가 지난 1월 초 유적에 대한 재발굴과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독 사원이 아닌 대규모 승원 유적군이었음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ASI 콜카타 지부의 고고학자로 유적 발굴 총감독을 맡은 슈바 마줌더 박사는 "이 유적지는 지난 50년 동안 미발굴 상태였다. 불탑은 보통 부처나 보살, 승려와 관련된 유물을 봉안하는 기념물이기에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는 데 반해 지금까지 바랏푸르의 탑은 이렇다 할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다.

마줌더 박사는 "철성분을 유약으로 사용한 도기들이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보통 생활용품으로 사용됐기에 발굴된 유적의 문화적 순서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그 결과 이번 발굴을 통해 보다 확장된 승원 유적군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승원의 외벽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발견되었으며 발굴이 진행되면 승원이나 불탑의 건립시기 등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앞선 1970년대 발굴 당시 탑 부근에서 항마촉지인을 한 불상 5점이 발견됐다"면서 "높이가 30cm인 소형으로 이번 승원 유적군 발굴과 연결하여, 승원에서 예불을 위해 봉안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커타 대학 고고학과의 루펜드라 쿠마르 교수는 바랏푸르 승원 유적군은 두 가지 요점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기원전 2,000년경 다모다르 강둑에 위치한 선사시대 정착촌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불교승원 유적군이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그는 "이번 발굴은 선사시대 정착촌과 승원 유적지의 문화적 연속성을 추적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쿠마르 교수와 마줌더 박사는 "인도 불교유적지는 대부분 인도의 남서부 지역인 벵골 지역에서 발견됐다. 벵골 서부에 위치한 바랏푸르의 승원 유적군 발굴은 이 지역의 불교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